

대권구도 양강체제 지속...두달 잠행 윤석열 등판시기 촉각

리얼미터 조사 윤 30%·이재명 25%
 이낙연 11.1%·정세균 3.8%
 윤 전총장측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국민의힘 전대 이후 출마 선언 유력
 이낙연 “숨기고 있는 느낌...당당하길”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첫발을 뗄 시점을 두고 관측이 분분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바짝 추격당하는 가운데서도 윤 전 총장은 당분간 물밑에서 국정 운영을 향한 기본기를 다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성인 2004명을 상대로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30.5%, 이 지사가 25.3%를 각각 기록했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둘의 격차는 8.2%포인트에서 5.2%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최근 일부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정세 내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길어지는 잠행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지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이 지사가 현직 지자체제로서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공개적으로 지지 그룹을 키워가는 데 비해 “자연인 윤석열”의 운신의 폭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당장 야권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뜻이다.

윤 전 총장이 4·7 재보선 직후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애초 관측과 다르게 집거를 이어가자 5월 등판설, 6월 등판설 등이 별다른 근거 없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신속한 결단을 요구하는 정치권 분위기와 달리 윤 전 총장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권 교체에 대비해 명분으로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는 국민의힘이 아직 세리시 선출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선불리 몸을 일으키기 꺼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색깔이 너무 다양하다”며 “이 당의 성격과 정체성이 어떻게 될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이들은 윤 전 총장 집거 중에 여론 주자들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면 급세 복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 지인은 “윤 전 총장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말씀을 듣고자 고민하고 노력 중”이라며 그의 잠행이 한동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야권의 앞서는 주자는 생각이 무엇인지, 본인의 내면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빨리 드러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뭔가 숨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담보다 2.1%포인트 오른 11.1%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3개월만의 반등이지만 지역적 기반인 광주·전라(27.3%→20.3%)에서는 하락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8%를 기록했다.

범진보·여권 주자군(이재명·이낙연·정세균·심상정·이광재·박용진·양승조) 지지율 합계는 4.8%포인트 오른 46.2%,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홍준표·오세훈·안철수·유승민·김동연·원희룡)은 3.8%포인트 내린 45.9%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코로나 격차 해소 위해 내년까지 확장재정 필요”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제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완전한 경제회복, 든

든 국가재정’을 주제로 중기 재정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이 코로나 이후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도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로 개편하고자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뒤질 수 없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신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이광재 대선 출마 선언...“시대·세대·선수 교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으로 20대 대선에 도전한다”며 ‘유능한 정부’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세계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일류 국민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의 정치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원한다”며 “시대교체와 세대교체, 선수교체 3박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교 주변에 주거와 돌봄시설을 복합화한 학교아파트를 만들고, 대학 안팎에 주거단지 및 기업이 들어서는 대학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남남대선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절실함을 잊을 수 없다”며 “분열의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또 “캠핑 정

치, 전리품 정치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및 중점 과제만 수행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는 책임총리제와 선거구제 개혁 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제가 누구보다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가짜뉴스를 확실히 근절하고, 공동체 파괴 범죄를 엄정히 다룰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땅은 공공재가 돼야 한다”며 “신설 역세권과 절대농비를 국가가 비축, 땅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이어가고, 문재인 대통령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 등 대선 경쟁자들도 자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약 60명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 미래 위한 대선 공약과제 발굴해 달라” 이용섭 시장 공공기관장회의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오전 광주글로벌모터스 회의실에서 광주시공사 등 25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현안 및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공공기관별 주요 핵심 현안이 공유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임대주택 그린뉴딜 리모델링’,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기업가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ESG 중심 사회가치경영’, 광주환경공단은 시 공공기관 최초 ‘ISO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소개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틈새 돌봄지원단 운영’을, 국제기후환경센터는 2045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그린 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3무 지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광주시 미래도약을 위해 실

영호남이 추진 중인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광주그랜드비전 수립 등 시장 주요 현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광주공공매달업이 지역대표 플랫폼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도 주된 릴레이 행사(일명 ‘언능 시켜부러’ 챌린지)에 참여하는 등 적극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차량 생산과정 등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